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라

경제계 화두 운니지차(雲泥之差), 양극화 지적
높은 실업률 이면에는 가정 · 개인 문제 연결

(기획연재) **불교와 경제**
① 생활경제 속에서 불교를 찾다
② 인생을 경영하라
③ 불자CEO에게 듣는 자기 경영법

잠자고 밥을 먹는 일, 시장에 들러 찬거리를 사거나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 우리삶의 모든 활동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경제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념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의 경제관념과 생활은 어떻해야 할까. 불교에서 그 지혜를 배워보자.

그림 · 박구원

불교서 경제 따지는 현실에 대한 의문
"부정적 입장 견지하는 종교 인식" 잘못
부처님, 안목없는 사람에 사분법 제시
자리이타 · 나눔 등 지혜의 경제 일깨워

경제에 관한 한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람들의 움직임과 생각 하나하나 경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부터 지역,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경제이다.

국내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한 해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운니지차(雲泥之差)'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기업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1명이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의 운니지차는 2006년 우리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경제지표들이 경기회복세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면서 정부를 비롯한 민간연구소들도 올해 성장률을 5%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과 임금격차 확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따른 사회보장비 삭감, 고령화 급진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경제문제의 범위를 좁혀가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드러난다.

#잘 벌고 잘 쓰는 법

서울 도선사에 다니는 오순영씨(37 · 서울 상계동)의 생활 면면에도 알게 모르게 경제논리가 작용한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오씨는 언론을 통해 접하는 경제 소식은 대충 훑어보거나 흘려듣기 일쑤였다. 나, 내 가정과는 동떨어진 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반면 오씨는 남편과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꼼꼼하게 가계를 챙겼다. 기초생계비를 비롯해 아이들의 양육비, 교육비, 문화생활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졌다.

신행생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오씨는 신행생활이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선사에서 보내온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불교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초와 향을 사서 불단에 올리고 시주금을 내는 일까지도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었고, 오씨에게는 가정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한 분야였다.

순간 오씨는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됐다. 무소유를 강조하는 불교는 수많은 경제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세계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어 풍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데 불교는 되레 그 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불교를 욕망을 부정한 무소유의 종교로 이해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종교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은?

부처님은 재산을 얻거나 늘이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증식의 방법을 식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이를 두 눈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목이 없는 사람과 안목은 있으되 식별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각각 눈먼 사람과 한 눈만 있는 사람으로 비유했다. 이는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지되 바르게 벌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수입을 생계비와 생산비, 저축, 여윳돈 등 으로 나누어 사용하라는 사분법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불교의 경제논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자리이타와 나눔, 회향의 가르침은 바르게 쓰는 법을 일러준 지혜의 경제라 할 수 있다.

불교의 경제관을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불자들도 있다. 불교학을 전공한 김효주(42 · 부산시 명륜동)씨는 지난해 경전에서 사분법을 접하고 가정경제에 적용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효과는 너무 좋았다.

전엔 여섯명이나 되는 가족의 생계비 부담이 너무 커서 저축은 물론 여윳돈을 가질 없었지만, 사분법을 적용한 뒤부터 저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정진우(47 · 청주시 우암동)씨는 큰 효과는 얻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사분법을 가정경제에 적용하고 있는 경우다. 저축비중이 높았던 예전과 달리 생계비와 생산비, 저축의 비율을 어느정도 맞추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윳돈을 굴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정진우씨는 사분법을 통해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불교에서 경영법을 찾은 것 외에도 스스로 자신을 경영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은 경제의 출발점을 자신과 가까운 가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불교의 경제관은 기업이나 지역사회에 적용돼 실증받은 바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개인, 가정의 담을 넘어 기업으로,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연(蓮)국수

연잎향기 가득한 연국수는 인체에 유해한 왁스층을 제거한 백련잎을 사용하여 재래식 방식으로 한올한올 정성 들여 면을 뽑아 옛맛을 재현한 고급 손국수입니다.
건조와 숙성을 반복하여 쫄깃하고 감칠맛이 나며, 무표백 무방부제 무색소의 완전 무공해 고급식품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근분말이 함유되었으며 스님들의 영양식으로 쓰이는 연꽃씨앗 분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격 3,000원

분다의 경제학 (1)

돈을 위해 산다고?

"새해에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대박 터뜨리세요."

이런 말들이 아마도 새해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덕담이고 인사일 것이다. 몇 해 전 '부자 되세요'라는 모 금융회사의 광고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처음 들을 때만 해도 부끄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민망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되바라진 광고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무난하고 보편적인 인사가 되어버렸다.

돈이야말로 내가 움직이고 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불문의 윤리로까지 승화된 듯하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산다"라는 말을 부정하면 위선이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돈이 아닌 그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거나, 정치가이거나, 정신이상자라고 간주한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온갖 노력을 다해 벌려고 하는 돈을 가지고 막상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돈을 벌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궁색하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돈을 잔득 쌓아 놓고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그럴 듯한 변명 중의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사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선(善)이 되었다. 어떠한 과정을 밟든 돈을 벌게 되면 존경 받고 힘을 가지게 된다.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무시의 생각이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돈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동료를 속이는 등의 이야기는 너무나 소박한 동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경제활동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교는 부(富)와 재(財)를, 보다 직설적으로는 돈을 경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경전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부모, 아내, 자식, 그리고 남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도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경계하고 있다.

즉 일정한 윤리 규범에 따라 재산의 획득을 추구해야 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 정당한 법에 따라 재산의 증대와 축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행위가 '해탈을 위한 수도'라는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참다운 뜻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과 윤리' 보다 돈의 현실적 가치 크게 부각
어떻게 벌어서 무엇을 위해 쓸까 고민해야
경전은 윤리규범에 따른 재산 증대 축적 강조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한때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 경제적 동물이라고 우리가 비하했던 적이 있었다. 단지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 있고 다른 가치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냉소하면서 붙였던 말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로 우리야말로 경제적 동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그 과정이야말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때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한 달에 한번 만이라도 생각해보자.

오직 돈만을 추구해온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은가.

■구병진(경영학 박사)

구병진 박사는 서울대 경영학 박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초빙교수,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강사로 출강했으며,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실장, 다산캐피털 대표이사, 푸른1318 대표이사 등을 두루 거쳐 실물경제 분야에도 정통하다. 현재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불교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 문의전화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 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